# 캐나다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 관광, 유학, 취업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

## 요약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캐나다인의 한국 방문 목적을 관광, 유학, 취업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서 드러나는 주요 동향과 실질적인 궁금증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제공된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캐나다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가 어떻게 기능하고, 문화적 차이가 개인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 캐나다 관광객들은 서울의 역사적 깊이와 현대적 활력, 부산의 해안 도시 문화, 제주도의 자연 휴양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들은 구글이나 애플 지도 앱의 제약과 같은 기술적 마찰 지점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며, 개인 공간을 중시하는 캐나다 문화와 한국의 '참견하는' 문화 사이의 잠재적 충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학:** 캐나다 유학생들은 한국의 학업 부담에 대해 막연한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유학 생활은 출석과 과제 제출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학점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유학 버블'이라는 독특한 환경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부담을 덜고 문화 체험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 대학이 제공하는 포괄적인 장학금 제도는 유학 결정에 있어 주요한 재정적 동기로 작용합니다.

**취업:** 한국에 거주하는 캐나다인 전문가들은 대다수 영어 교육직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주거를 지원하는 경제적 혜택을 통해 높은 저축률을 달성하는 것을 중요한 동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적 가치에 기반한 직장 내 위계질서, 간접적인 소통 방식, 그리고 긴 노동 시간은 캐나다의 수평적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상당한 적응 과제를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한류와 매력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캐나다인들에게 강력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공간, 소통 방식, 그리고 기술적 인프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마찰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인의 한국 내 취업이 영어 교육이라는 특정 경로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향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제1장: 캐나다인의 한국 관광 동향: 목적지와 관심사

### 1.1. 주요 관광 목적지 분석: 서울, 부산, 제주 트라이앵글

캐나다 관광객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과거와 현재, 자연과 도시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경험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행 상품들이 서울, 부산, 그리고 제주 또는 경주를 필수 코스로 구성하는 경향은 캐나다인들이 한국의 다층적인 면모를 보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합니다.1

**서울:** 서울은 역동적인 수도이자 한국의 역사와 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경복궁, 창덕궁궁, 북촌 한옥마을 등 조선 왕조의 유적지를 통해 한국의 전통 건축과 역사를 탐험하는 동시에, 강남의 세련된 쇼핑 지구, 명동의 활기찬 거리에서 현대적인 도시 생활을 경험합니다.3 특히, K-Pop 댄스 클래스와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은 한류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문화적 참여를 갈망하는 젊은 층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1 또한, 분단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DMZ(비무장지대) 투어의 출발점으로서, 현대 한국사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줍니다.3

**부산:** 서울의 번잡함과 대조적으로, 부산은 해변, 산, 그리고 도심이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해동용궁사, 태종대 같은 명소에서 자연 경관을 즐기며, 자갈치 시장에서는 부산 특유의 해산물 문화를 경험합니다.3 이러한 특징은 도시 생활과 자연 휴양을 동시에 추구하는 캐나다인들의 성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한국의 하와이'로 불리며, 성산일출봉 하이킹, 올레길 트레킹, 주상절리대 탐방과 같은 자연 친화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 휴양지로 인기가 높습니다.1 캐나다인들이 관광에서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자연과 교감하고 휴식하는 경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선호는 캐나다의 광활한 자연과 다채로운 도시 환경에 익숙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광객들은 한 번의 여행으로 한국의 전통, 현대, 자연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경험을 원하며, 주요 여행 패키지는 이러한 수요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 1.2. 캐나다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용적 정보: 기술과 문화의 교차점

한국을 방문하는 캐나다인들은 여행의 물리적 목적지 외에, 한국의 독특한 기술 및 문화적 환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탐색할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익숙한 기술적 도구가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술적 인프라의 적응:** 캐나다인들은 구글 지도나 애플 지도 앱이 한국에서 제한적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대신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과 같은 현지 지도 앱의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5 또한,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되지만 애플 페이와 같은 특정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5 길거리 음식이나 전통 시장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필요하며, 해외 결제 수수료가 없는 신용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실용적인 선택으로 여겨집니다.5 교통카드와 결제 기능이 통합된 WOWpass와 같은 카드는 이러한 기술적 장벽을 해소하고 여행의 편리성을 크게 높여주는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5

**문화적 예절과 개인 공간:** 캐나다인들에게는 개인 공간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의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6 또한, 한국에서는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흔하지만, 캐나다 문화에서는 이를 불편하게 느끼거나 상대방을 '물건화'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6 인종, 민족, 성적 취향 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한 언급은 캐나다 문화에서 명백한 금기 사항(faux pas)입니다.6 이러한 차이점은 단순한 예절 문제를 넘어, 깊은 문화적 가치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한국 여행에서 이러한 잠재적 마찰을 피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캐나다인들이 여행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어디를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그곳까지 가고,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 도시 | 관광객 관점 | 유학생 관점 | 직장인 관점 |
| --- | --- | --- | --- |
| **서울** | 역사와 현대 문화의 균형 (궁, 강남, 명동), 한류 체험 가능. 대중교통 최고. | 명문 대학이 밀집, 다양한 학과 선택지, 국제적 커뮤니티, 편리한 교통. 생활비는 높음. | 취업 기회 가장 많음. IT, 금융 등 다양한 분야. 생활비가 높지만, 이태원 같은 외국인 밀집 지역이 존재. |
| **부산** | 해안 도시의 매력, 해변과 산의 조화, 신선한 해산물. | 부산대 등 대학이 있으나, 서울만큼 국제적 선택지는 아님. 생활비는 서울보다 저렴. | 영어 교육 외의 취업 기회는 제한적. 해운대, 마린시티에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 |
| **제주** | '한국의 하와이', 자연 경관, 하이킹, 느린 삶. | 유학생 커뮤니티가 거의 없음. 유학 목적지보다는 휴양지. | 영어 교육 외 취업 기회가 매우 제한적.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운전이 필수. |
| **대구** | 문화 유산, 풍부한 역사, 더 낮은 물가. | 서울이나 부산만큼 유학생 선호도가 높지 않음. 생활비는 저렴한 편. | 물가가 저렴하나, 외국인에게는 다소 '지루한' 도시로 인식될 수 있음. |
| **인천** | 국제 공항이 있어 편리, 서울 접근성 우수. | 서울과 가까워 편리하나, 유학생 커뮤니티는 제한적. | 공항 관련 산업, 금융, 기술 분야에 취업 기회가 있음. 서울보다 생활비 저렴하나, 매력도는 떨어짐. |

## 제2장: 캐나다 학생들의 한국 유학: 학업, 생활, 그리고 재정 지원

### 2.1. 캐나다 유학생 선호 대학 및 지역

캐나다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고려할 때, 학술 교류 프로그램이 잘 구축된 대학들이 주요 선택지가 됩니다. 캘거리 대학교나 로얄 로즈 대학교와 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는 캐나다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대학입니다.7 또한, 연세대학교나 경희대학교와 같이 국제 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명문 대학들도 선호됩니다.9 유학생들은 학업과 문화 탐방을 병행하기에 최적의 환경인 서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5 서울은 편리한 대중교통과 활발한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학생들이 정착하는 데 용이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2.2. 유학 생활의 현실: 기대와 실제의 차이

캐나다 유학생들은 한국의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와 학업 경쟁에 시달린다는 소문을 듣고 유학 생활의 학업 부담을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9 그러나 실제로 한국 유학 경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제 학생들은 한국인 학생들과는 다른 '유학 버블' 속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생각보다 낮으며, 과제를 제때 제출하고 높은 출석률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A-와 같은 좋은 학점을 받기 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9 교수들은 국제 학생들에게 관대하게 학점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캐나다 현지보다 오히려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출석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일정 횟수 이상의 결석은 학점 미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몇 분 지각하는 것만으로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성실한 출석이 학업 성공의 핵심입니다.9

대부분의 캐나다 유학생들은 교내 기숙사나 국제 학생 전용 기숙사에 입주가 보장되며 7, 이를 통해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숙사 내에서 한국 학생들과 생활하며 문화 교류를 하거나, 독립된 공간을 선호하는 경우 국제 학생 전용 기숙사를 선택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7

이러한 환경은 한국 대학이 국제 학생들을 단순히 학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 문화 교류의 주체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학생들이 한국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학업 부담을 조절하는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2.3. 재정 계획: 장학금, 생활비, 아르바이트 기회

재정적인 측면은 캐나다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정부와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장학금은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부 초청 장학금인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GKS)** 프로그램입니다.11 이 장학금은 학비, 생활비, 항공권, 심지어 한국어 연수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다른 서구권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을 재정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유학지로 만듭니다.11

고려대학교와 같은 많은 대학들도 입학 성적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되는 Global Leader Scholarship A/B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2 이는 캐나다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서울이 가장 비싸지만, 기숙사나 고시원과 같은 저렴한 주거 옵션을 이용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13 유학생들은 6개월 이상 체류하고 대학 교수의 추천을 받으면 주당 20시간 이내로 아르바이트도 가능하여 14, 추가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장학금 제도는 단순히 학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캐나다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장학금명 | 제공 주체 | 자격 요건 | 주요 혜택 |
| --- | --- | --- | --- |
|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GKS)** | 한국 정부 | 지원자 및 부모 비한국 국적, 만 40세 미만, 직전 학업 과정 GPA 80% 이상 등 | 학비, 생활비(월 80만 원), 항공권, 어학 연수비, 의료 보험 등 |
| **대학별 장학금** | 각 대학 (예: 고려대학교) | 입학 성적 또는 직전 학기 GPA, TOPIK 레벨 등 | 학비 전액 또는 일부 면제 (예: Global Leader Scholarship) |
| **교환 학생 지원 장학금** | 서울시립대학교 등 |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의 학생, 특정 요건 충족 | 월별 장학금(80만 원) 및 일회성 정착 지원금(20만 원) 등 |

## 제3장: 캐나다 전문가들의 한국 취업 및 거주: 기회와 도전 과제

### 3.1. 주요 취업 분야 및 거주 도시: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취업 활동을 하는 캐나다인들의 직업은 압도적으로 영어 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공립학교(EPIK)나 사설 학원(Hagwon)의 영어 강사로 일하며, 경력이나 석사 학위가 있다면 대학교 강사직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15 이는 한국 내에서 영어가 모국어인 캐나다인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업 경로입니다.

거주 도시로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이 선호됩니다.10 특히 서울은 가장 많은 일자리와 높은 급여를 제공하며, 이태원처럼 외국인 친화적인 지역이 있어 정착이 용이합니다. 부산의 마린시티 역시 외국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 인기가 높은 지역입니다.10

### 3.2. 한국 생활의 경제적 측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

한국 내 영어 강사의 평균 월급은 약 2.0~2.8백만 원(KRW) 수준으로 17, 이는 캐나다에서 유사한 직업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한국 생활을 경제적으로 매력적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높은 저축률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주가 주거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15, 월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지출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캐나다인이 서울과 같은 고가 도시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상당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경제적 이점입니다. 생활비의 다른 부분(식비, 교통비, 여가)은 주거비가 해결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집니다.13

다음은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는 캐나다인의 예상 월별 예산표입니다.

| 항목 | 월평균 금액 (KRW) | 설명 |
| --- | --- | --- |
| **월 수입** | 2,200,000 KRW | 평균 영어 강사 급여 15 |
| **고정 지출** |  |  |
| 주거비(월세) | 0 KRW | 고용주가 지원 (대부분의 경우) 15 |
| 공과금 | 100,000~200,000 KRW |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17 |
| 통신비 | 50,000~60,000 KRW | 모바일 요금제 18 |
| 건강보험료 | 100,000 KRW | 의무 가입 13 |
| **변동 지출** |  |  |
| 식비(외식) | 200,000~400,000 KRW | 외식 선호 시 13 |
| 식비(집밥) | 250,000~400,000 KRW | 식료품 비용 13 |
| 교통비 | 50,000~80,000 KRW | 대중교통 이용 13 |
| 여가/문화생활비 | 100,000~200,000 KRW | 영화, 카페, 쇼핑 등 17 |
| **총 지출** | **약 750,000~1,100,000 KRW** |  |
| **예상 저축액** | **약 1,100,000~1,450,000 KRW** | 세후, 예상 지출을 뺀 금액 |

### 3.3. 한국 직장 문화 적응 가이드: 위계와 관계의 이해

한국의 직장 문화는 유교적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의 수평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캐나다인 전문가들에게 적응해야 할 가장 큰 도전 과제로 작용합니다.

**위계질서와 소통:** 한국 직장 문화의 핵심은 위계질서와 연공서열입니다. 의사결정은 주로 상위 직급에서 이루어지며, 직위가 낮은 직원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19 또한,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읽는' 능력인

눈치(Nunchi)는 성공적인 직장 생활에 필수적입니다.20 캐나다에서는 흔한 강한 악수나 직접적인 소통 방식은 한국에서는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6

**관계 형성:**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관계가 단순히 직업적인 것을 넘어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전에 캐주얼한 대화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며 19, 회식이나 식사를 통해 깊은 감정적 유대인

정(Jeong)을 형성하는 것이 성공에 필수적입니다.20 이러한 관계 중심의 문화는 업무와 사생활의 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나다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 과제입니다.

**근무 시간:**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 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며 20,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근무 방식은 캐나다의 유연한

워라밸 문화와 차이가 있어 적응이 필요합니다.

한국 직장에서의 성공은 재정적 보상 외에도, 위계질서, 간접적 소통 방식, 그리고 관계 중심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응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 제4장: 교차 분석 및 핵심 통찰: 캐나다-한국 문화적 교류의 교량

### 4.1. 캐나다인 관점에서 본 한국 문화의 특성과 오해

캐나다인들은 K-Pop, K-Drama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경쟁 사회라는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 및 취업 경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는 이 두 극단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국제 학생들에게는 학업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고, 영어 강사들에게는 안정적인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반면, 직장 문화나 일상생활에서의 미묘한 문화적 차이는 지속적인 적응을 요구합니다.

양국 문화 교류의 한 단면은 선물을 통해 나타납니다. 캐나다인들은 한국 방문 시 메이플 시럽, 아이스 와인, 또는 훈제 연어 같은 캐나다 상징물을 선물로 가져가고 21, 한국의 독특한 과자, 화장품, 혹은 전통 공예품(수저 세트, 도장)을 선물로 받고 싶어 합니다.22 이는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상호 존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 4.2. 데이터가 말하는 캐나다인의 한국에 대한 총체적 궁금증

본 분석은 캐나다인들의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단순한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을 넘어, 보다 깊고 실용적인 질문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관광객:** 어디로 갈까?를 넘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결제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집니다. 이는 구글 지도나 애플 페이와 같은 익숙한 도구가 작동하지 않는 기술적 마찰을 해소하려는 노력입니다.5
* **유학생:** 한국 수업이 많이 힘들까?라는 막연한 불안감 대신, 국제 학생으로서의 학업과 사회 생활의 균형은 어떠할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한국 대학들이 제공하는 '유학 버블'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업 외의 문화 체험에 집중하려는 성향을 반영합니다.9
* **취업자:**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이면에는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면서 문화적 도전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심층적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 보상이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13

### 4.3. 결론: 각 분야별 공통된 기회 및 도전 과제

**기회:** 한국은 한류의 영향력, 높은 치안 수준 6, 효율적인 공공 인프라, 그리고 매력적인 재정적 인센티브(장학금, 주거비 지원)를 통해 캐나다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 및 취업 분야에서 제공되는 재정 지원은 다른 서구권 국가에 비해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도전 과제:** 캐나다인의 한국 방문 경험을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 공간 및 소통 방식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6 둘째, 지도 및 결제 시스템의 기술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5 마지막으로, 현재 캐나다인의 한국 내 취업이 영어 교육이라는 단일 경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IT, 금융 등 다른 분야에서의 취업 기회 및 비자 제도 확대 정책은 한국이 캐나다로부터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참고 자료

1. Seoul to Busan & Jeju 13-Day Tour | On The Go Tours,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onthegotours.com/South-Korea/Seoul-to-Busan-and-Jeju-13-days>
2. Highlights Of South Korea: Seoul, Busan & Gwangju | EF Go Ahead Tours,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goaheadtours.ca/guided-tours/south-korea-seoul-busan-gwangju>
3. 28 Places To Visit In South Korea In 2025 For A Perfect Holiday - Travel Triangle,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traveltriangle.com/blog/places-to-visit-in-south-korea/>
4. 12 Best Places In South Korea To Visit - Hand Luggage Only,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handluggageonly.co.uk/12-best-places-in-south-korea-to-visit/>
5. A beginner's guide to Travelling Korea : r/koreatravel - Reddit,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reddit.com/r/koreatravel/comments/1hxiomi/a_beginners_guide_to_travelling_korea/>
6. A South Korean who has never been abroad wants to experience Canadian culture. Do you have any advice for first time traveler? : r/AskACanadian - Reddit,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reddit.com/r/AskACanadian/comments/1lufusj/a_south_korean_who_has_never_been_abroad_wants_to/>
7. University of Seoul | University of Calgary International,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ucalgary.ca/international/study-abroad/uniseoul>
8. University of Seoul - Royal Roads University,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royalroads.ca/current-students/study-abroad/university-seoul>
9. Am I going to be miserable studying abroad in Seoul as an ... - Reddit,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reddit.com/r/seoul/comments/1iy3yb8/am_i_going_to_be_miserable_studying_abroad_in/>
10. Best Places to Live in South Korea 2025 - alovelettertoasia.com,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alovelettertoasia.com/best-places-to-live-in-south-korea/>
11. GKS (Global Korea Scholarship) Program - Study in Korea | Run by ...,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studyinkorea.go.kr/in/plan/scholarship.do>
12. Scholarships - KOREA UNIVERSITY Global Services Center,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gsc.korea.ac.kr/usr/international/scolarships.do>
13. Cost of Living in South Korea: Rent, Food & Expenses - upGrad,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upgrad.com/study-abroad/articles/cost-of-living-in-south-korea/>
14. Ministry of Education > Homepage Guide > FAQ,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english.moe.go.kr/sub/infoRenewal.do?m=0703&page=0703&s=english>
15. Teach English in South Korea | Go Overseas,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gooverseas.com/teach-abroad/south-korea>
16. www.pacificprime.com,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pacificprime.com/blog/best-places-to-live-in-south-korea.html>
17. A Comprehensive Budgeting Guide for English Teachers in South ...,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ciee.org/go-abroad/work/teach-english-abroad/blog/comprehensive-budgeting-guide-english-teachers-south-korea>
18. Cost of living in South Korea in 2025: Clothing, Food, Housing & More - Wise,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ise.com/gb/cost-of-living/south-korea/>
19. Business Culture Guide: Doing Business in South Korea - Source of Asia,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sourceofasia.com/business-culture-guide-doing-business-in-south-korea/>
20. Korean Business Etiquette: The Ultimate Guide (2024) - GourmetPro,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gourmetpro.co/blog/korea-business-etiquette-ultimate-guide>
21. Canada-specific gifts for Koreans : r/korea - Reddit,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reddit.com/r/korea/comments/4nscr6/canadaspecific_gifts_for_koreans/>
22. Could you recommend a good gift to send from Korea to a friend living in Canada? - Reddit, 9월 10, 2025에 액세스, <https://www.reddit.com/r/AskACanadian/comments/1m735b9/could_you_recommend_a_good_gift_to_send_from/>